

# 나주시,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나선다

### 혁신산단 MVDC 스테이션 활용 직류산업 기술 개발·표준 만들어 2029년까지 단계별 추진... 10년후 47조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서

정부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나주시가 직류 전력망 플랫폼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

나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돼 세계 첫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지에 뽑힌 이후 올해 4월 16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정부로부터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공식적으로 지정받았다.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6월부터 오는 2028년 5월까지 나주시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직류(DC)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해 에너지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혁신산단에 구축된 MVDC(고압직류 배선) 스테이션을 활용해 전력 기자재의 실증-인

증을 벌일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직류산업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을 만들 예정이다.

직류 배전망(35kV→5kV→1.5kV) 실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직류 전압 기자재 제품 실증과 인증 획득, 해외 진출까지 연계해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범위는 빛가람 혁신도시, 나주 혁신산단, 나주 동수농공단지산단, 일반산단을 포함한 나주시 일원 12.1km<sup>2</sup> 지정됐다.

한국전력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자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TP),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일진전기(주)를 포함한 23개 기업이 참여해 특구 내 직류 전력 기자재 설계, 설치, 운용 등 다양한 실증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목표로 에너지자립, 에너지 안보 선제적 대응 및 전력수요 해결을 위해 단계별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나주 혁신산단 일원에 국내 실증을 위한 '라이브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실증을 완료하고 글로벌 직류 기준을 마련한다.

2단계는 2028-2029년 서남권 8.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실증결과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직류 전력망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나주시는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 확보, 세계 1등 제품 3개 선점,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1개사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앞으로 10년 뒤 직류 기자재와 운영기술이 세계 시장 10%를 차지할 경우 약 47조8000억원 규모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글로벌 혁신 특구 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수도권과 동부권으로 이송하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라며 "다가오는 분산 에너지 요소 기술과 직류 배전망 운용에 대한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원(맨 왼쪽) 강진군수가 지난해 지역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군, 전국 최초 '전자 공공수매' 도입

### 블록체인 공공분야 사업 선정 공공비축미 바코드 수매 간편화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전자 공공수매'를 도입한다.

강진군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도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10월 공모사업 신청 후 2개월 간 서면 평가, 전문가 컨설팅, PPT 발표평가를 거쳐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법무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특히 강진군은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되어 4차산업활용추진단을 신설하고 모든 업무의 지원 부서로 활용하는 등 한발 앞선 지방행정인 큰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를 통해 군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공비축미 수매 방식을 2024년부터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수매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수매 종합 플랫폼'은 전국적으로 수많은 종이와 수기 방식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기존 방식을 4차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에 접목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오류 및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시스템이다.

자치단체,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가의 공공비축미 물량 및 등급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바코드를 통해 농가별 정보를 인식시켜 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가 사라지고, 농가별 자동 산정을 통해 수매 시간이 줄어든다.

실시간으로 산정되는 수매 데이터는 당일 수매 종료와 동시에 농협 시스템과 농림부 장관 리양국 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되며, 농가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본인 등급 및 지급액을 확인 할 수 있고 재검 요청과 함께 전자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고 전국 여러 지자체의 참여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플랫폼이 구축되면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로 개인정보 유출, 3개 기관 데이터 불일치 등을 막아 인력 및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지방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에서 최근 천변 나드리교 인근과 벌고천에 조성한 2.1ha 규모 유채꽃길에서 노란 꽃망울이 터뜨려지고 있다. 유채는 이달 중순 만개할 예정이다. <화순군 제공>

## 장흥 정남진 토요일시장서 사투리 경연대회 열린다

### 11일, 초·중학생 10개 팀 참가 사라져 가는 지역사투리 재조명

장흥군이 오는 11일 정남진 장흥토요일시장에서 '사투리 경연대회'를 열며 재치있는 입담의 향연을 펼친다.

장흥문화원은 이날 토요일시장 상설무대에서 지역 초·중학생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회 장흥사투리 경연대회'를 열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됐다.

장흥과 얽힌 추억 이야기와 경험담, 소개하고 싶은 장흥의 역사, 관광지, 일상 이야기 등을 만담, 상황극, 연극 방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향원중학교 학생들은 영어 교사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장흥 고유 사투리로 풀어낼 예정이다.

장흥초교 다문화 학생은 가수 영탁의 '나가 왜 거기서 나와'를 맞춰볼까 부른다. 참가자들은 편백숲 우드랜드와 토요일시장, 탐진강, 표고버섯, 한우 등 장흥을 대표하는 명소와 특산품을 사투리로 소개할 계획이다.

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인기상 20만원, 특별상 20만원을 준다. 수상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도 10만원씩 줄 예정이다.

김명환 장흥문화원장은 "날로 사라져가는 장흥사투리를 어린 초·중학생들로 하여금 언어학적 가사로 재조명하고자 했다"며 "고향 일과 애郷심을 불러일으키고 재치와 해학이 깃든 사투리를 보존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전남체전·장애인체전 상징물 공모 장성군 오늘까지 표어 등 8개부문

장성군이 7일까지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 상징물을 공모한다.

장성군은 내년 '64회 전남도체육대회'와 '339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징(엔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표어(슬로건), 구호 등 8개 부문에서 응모를 받는다.

작품에는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스포츠 축제인 양대 체전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상징, 마스코트, 포스터 당선자에게는 각각 200만원, 가작 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구호, 표어 상금은 당선작 50만원, 가작 2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장성군 체육사업소 전남체전 전담팀(061-390-85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민간 전기버스 4대 보조금 지원

### 4억여원 투입... 오늘부터 신청

화순군이 7일부터 전기버스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버스 4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보조금에 따라 보조 물량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전기버스 민간 보급 사업에는 국비 2억 8000만원, 도비 8400만원, 군비 7475만원 등 4억 3875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화순군은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하며, 대당 최대 1억21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궁해자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

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내야 한다. 보조금(구매보조금+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구매 때 차량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또 보조금은 대형 전기승합차 기준 가격의 70%를 넘을 수 없다.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상담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내면 된다.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hwasu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3)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6일 '함평나비대축제'를 마친 뒤 오는 9일부터 정상 운영하는 함평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

## 축제 마친 함평엑스포공원 9일부터 정상 운영

### 공연 무대 철거 등 이틀간 정비 함평추억공작소 황금박쥐상 관람

함평군은 6일 '26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마친 뒤 7-8일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문화공연을 펼친 중앙 무대는 정비 기간 철거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엑스포공원 출입을 통제한다.

오는 9일부터는 식물전시관과 나비곤충생태관, 함평추억공작소 등 다양한 주제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다.

함평추억공작소에서는 1960-1980년대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 황금박쥐전시관에서는 순금 162g, 은 281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도 만날 수 있다.

공원 중앙광장에는 쫄나무·희망나무, 이색조화류 활용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함평천 습지공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대왕잠나무 등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 밤 시간대에는 다양한 조명이 빛을 비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제는 끝났지만 함평엑스포공원은 정상 운영되니 가까운 이들과 함께 우리 군의 풍부한 축제 콘텐츠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